



雲  
門



불기 2553년 가을호 통권 제110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교수논단	4
차례법문	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10
학인논단	12
특별기고	14
사찰탐방	18
이 한 권의 책	22
선사이야기	24
想	26
끝없는 여정	28
우리 절 이야기	30
인도기행	34
담소	36
수행의 두레박 I	40
II	42
III	44
운문논평	46
운문소식	48
신입생보집공고	50
	51

(운문사 동파학장 출판지)

무지의 도량이며  
진리의 자리에 차그늘기 빛이 되어  
보살의 뜻을 드려마음말에  
꽃봉선에죽은의 향기 그윽하고  
갈고심은혜박의  
셋 엎도 나

비워 물

세우노니

길을 물에

보살의 뜻을 드려

마음말에

호거산

천년의 정기여행



## 여래법은 바다와 같다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별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여름 무성했던 나뭇잎들을 다 떨쳐내고 홀홀히 맨몸을 드러내고 있는 저 산과 나무들을 보노라면, 우리 출가자의 모습도 저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래의 법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해(教海)라고도 하지요. 그 가르침의 바다에서 출가 수행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 흐르는 물과 같이 무상하고 신속하여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고 출가하여 불법의 바다 속에서 나날이 살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하고 희유한 일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밧티의 녹야원에서 오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다를 좋아한다는 어떤 젊은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래시여! 여래의 법 바다에는 어떤 것이 있기에 수행자들이 그 안에서 즐깁니까?”

나에게는 여덟 가지 법이 있어 수행자들이 그 법 안에서 즐기고 있느니라.

첫 째, 여래의 법 안에는 계율이 갖추어져 있어 방일한 행이 없다.

그것은 저 바다처럼 매우 깊고 넓다.

둘 째, 세상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지만, 내 법 안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은

그 네 가지 계급을 떠나 한결같이 사문이라 부른다. 마치 네 개의 강줄기가 바다에 들어가면 한 맛이 되어 그전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셋 째, 정해진 계율에 따라 차례를 어기지 않는다.

마치 바다의 조수가 때를 어기지 않는 것과 같다.

넷 째, 여래법은 결국 똑같은 한 맛이니 팔정도(八正道)가 그것이다.

다섯째, 여래법은 갖가지 미묘한 법으로 가득 차 있다. 바다에 여러 중생들이 사는 것처럼 수행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즐긴다.

여섯째, 바다에 온갖 보배가 있듯이 여래법에도 온갖 보배가 있다.

일곱째, 여래법 안에서 온갖 중생들이 집을 떠나 도를 닦아 열반에 이른다.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이 마치 저 바다가 증감이 없는 것과 같다.

여덟째, 큰 바다 밑에 금모래가 깔려 있듯이 여래법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삼昧(三昧)가 있다. 수행자들은 그것을 알고 즐기는 것이다.

증일아함경 팔난품(增一阿含經 八難品)

여래법의 바다에는 세상 바다와 견줄 수 없는 천배 만배의 훌륭한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여덟 가지 길(팔정도)입니다.

학인스님 여러분, 바다와 같이 광대하고 미묘한 여래의 법 가운데에서 설하신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따라 계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

## 一然禪師와 雲門寺 II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 목 차

1. 序 言
2. 雲門寺의 創建과 來歷
- 3. 一然스님의 生涯와 性品**
4. 一然스님의 著作과 『三國遺事』
5. 一然스님과 雲門寺
6. 結 語

### 3. 一然스님의 生涯와 性品

一然스님은 고려 21대 熙宗 2년(A.D. 1206)에 태어나서 25대 忠烈王 15년(A.D. 1289)에 입寂하였으니 세수가 84세요, 법립이 71세였다. 一然 스님이 생존했던 고려사회는 崔氏執政期에

서 對蒙抗爭期를 거쳐 蒙古支配初期의 국내외적 으로 多事多難했던 시기로서 온 국민과 함께 시련을 겪어야 했었다.

一然 스님의生涯는 현재 경북 군위군 麟角寺에 전하고 있는 「高麗 國華山 曹溪宗 麟角寺 遂智 山下 普覺國師碑銘并序」와 이 碑의 隱記를 통해 서 살펴볼 수 있다.<sup>1)</sup>

이 碑는 스님께서 示寂하니 忠烈王의 명으로 默軒公 閔瀆가 짓고 글씨는 門人 竹虛가 王羲之의 遺墨에서 集字 캐 하여 元貞 元年(A.D. 1295) 8월에 門人이며 운문사 주지였던 大禪師 法珍이 세웠다. 현전하는 비는 글자가 거의 磨滅되어 알아볼 수 없으나 몇 개의 古拓本과 寫本이 있어 그全貌를 알 수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한국문화연구원 소장 古托本과 규장각에 소장된 「麟角寺碑」書帖에 있는 碑隱記를 통하여 3) 스님의 生涯와 性品을 살펴보기로 한다.

스님은 慶州 章山君(현 慶山) 사람으로 俗性은 金氏요 譚는 見明, 字는 晦然, 號는 瞞庵이다. 一然은 후에 바꾼 이름이다. 스님은 나면서부터 총명, 영리하고 모양이 단정, 엄숙하여 소의 걸음에 범의 눈초리였다[牛行虎視]. 고종 1년(A.D. 1214) 9세에 海陽(現 光州) 無量寺에서 출가하여 14세에 雪岳山 陳田寺 長老 大雄에게 나아가 삭발하고 具足戒를 받았다. 고종 14년(A.D. 1227) 22세에 僧科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하여 九山四選<sup>4)</sup>의 으뜸이 되었다. 그후 包山(현 玄風 비슬산)의 寶幢庵, 妙門庵, 無住庵 등에서 수도에



▲ 운문사 대웅전 벽화

정진한 결과 고종 24년(A.D. 1237) 32세에 이르러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 三重大師<sup>5)</sup>라는 法位가 수여되었으며 고종 33년(A.D. 1246) 41세에 禪師가 되었다. 고종 36년(A.D. 1249) 44세에 鄭晏의 초청에 의하여 南海定林寺에 주석하였고, 고종 46년(A.D. 1259) 54세에 大禪師가 되었다. 元宗 2년(A.D. 1261) 56세에 왕명으로 上京하여 禪月社에 주석하며 멀리 牧牛和尚(普照國師)의 法脈을 이었다.<sup>6)</sup> 원종 5년(A.D. 1264) 59세에 吾魚寺에 안거하였고 원종 9년(A.D. 1268) 63세에 왕명을 받아들여 雲海寺에서 禪教에 이름이 높은 高僧 百名을 모아 大藏落成會를 베풀 때 스님을 會首로 삼았다.

78세에 왕이 스님을 國尊에 冊封하고 圓徑沖照라는 號를 내리고 宮內에 맞아들여 몸소 百僚를 거느리고 振衣禮<sup>7)</sup>를 행하였다. 스님이 老母의 봉양을 위하여 옛 절에 돌아가기를 간청하자 왕이 그 뜻을 허락하고 近侍佐郎 黃守命에게 명하여 스님을 호위하여 어버이를 모시게 하였다. 충렬왕 10년(A.D. 1284)에 老母가 96세로 돌아가신니 이때에 국사는 79세였다. 이 해에 나라에서 인각사를 스님의 下安의 절로 삼아 近侍 金龍劍에게 명하여 인각사를 중수케 하고 전답 100여頃을 하사하였다. 스님은 여생을 인각사에서 한가롭게 보내면서 九山禪門<sup>8)</sup> 곧 達磨의 禪法을 전하여 禪風을 일으켜 두 번이나 九山禪門의 都會를

5) 三重大師는 고려시대 僧科를 거친 스님들의 法階中의 하나로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의 順이다. 三重大師의 특징은 禪宗法階나 教宗法階가 共通이며 이 법계를 거쳐야만 教宗은 首座가 되고 禪宗은 禪師가 된다.

6) 知訥門下의 正脈을 이은 慧謙과 一然은 동시인물이다.〈三國遺事와 僧 一然과의 關係考略, 李楠永〉 어떤 연유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鄭晏의 私第인 定林寺에 초청을 받은 이후로는 修禪社 계통의 慧謙(曹溪宗의 第二祖)의 저술인 『禪門拈頌』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修禪社 三世인 夢如와도 교분을 맺게 되어 명실상부한 修禪社 계통의 계승자로 자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閔瀆의 표현대로 「遙嗣牧牛和尚」이라 했으며, 修禪社와 연결된 禪月社(禪源寺로 추정됨)에 주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修禪社의 계승자로 자처한 것 같다.〈普覺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 蔡尚植〉 참조.

7) 振衣禮~옷의 뒷자락을 걷어 올림. 옛날의 戲禮.

8) 九山禪門~迦智山門 長興 寶林寺, 寳相山門 南原 寶相寺, 桐裏山門 谷城 泰安寺, 凤林山門 昌原 凤林寺, 聖住山門 保寧 聖住寺, 獅子山門 繞州 雙鳳寺, 曜陽山門 間慶 凤巖寺, 須彌山門 海州 須照寺, 閔瀆山門 江陵 崴山寺.

1) 이 碑는 1965년 9월 보물 428호로 지정되었지만 두동강이 난 채 四尺 정도의 殘碑로 麟角寺 경내에 남아 있다.

2) 「元貞元年乙未八月日 門人 沙門竹虛奉勅集晉右軍王羲之書 門人內願堂兼住持通奧 真靜大禪師法珍 立石」 麟角寺誌 十張上 蔣濟明

3) 碑隱記에 「寶鏡寺住持通奧 真靜大禪師山立通」이라 明記된 것을 볼 때 通奧 真靜大禪師는 일연스님이 입적한 1289년 경에는 운문사 주지를 하였고, 또 일연비를 건립한 1295년 경에는 내원당과 보경사 주지 및 인각사 주지를 겸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정대선사는 일연의 법맥을 계승한 寶鏡국사 濬丘(1251~1322)로 이름을 清珍(法珍)이라고 했다가 山立이라고 바꾸었다. 普覺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 韓國史研究 26, 蔡尚植, pp.38~40.

4) 九山四選은 '一然碑銘'에 나오는 술어로 九山門選의 一種인 듯하다. 教宗에서는 宗禪이라 하고 九山에서는 門選이라 한다. 九山 이므로 九山九選이라 해야 하거늘 九山門選이라 한 것은 九山門選의 대표인 듯하다.

열었다. 또『三國遺事』를 지어『三國史記』와 함께 우리나라 현존 最古史書中の 雙壁이 되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撰述한 곳을 흔히 麟角寺라고 말하고 있으나『增補三國遺事』(崔南善編)에 의거하건대 『三國遺事』는 一然의 70세 이후로 京師에 被召하여 國尊에 冊封되기까지 雲門寺에서 遺聞한 業績이요 그 중에서도 俗事의 部인 王歷과 紀異兩編은 아직 王命이 있을 그 前期의 撰成일까 하노라…… 이것이 『三國遺事』의 筆이 麟角寺에 오기 전 따라서 國尊이 되기 전에 끊었음을 말하는 明證일 것이며 卷五에 麟角寺 云云의 署銜은 무릇 刊板하는 後日의 事일 것이며 또한 顧慮될 것 아닐까 하노라” 한 것으로 보아 삼국유사를 撰述한 곳이 雲門寺인 듯하다.

스님께서 충렬왕 15년(A.D. 1289) 7월 8일에 示寂하니 享年이 84세요, 법립이 71세였다. 왕이 매우 슬퍼하며 사신을 보내어弔喪하고 謂號를 普覺이라 하고 塔號를 靜照라 하여 인각사 동쪽 5리쯤 떨어진 缶缶村 뒷산에 塔을 세웠다.<sup>9)</sup>

一然스님은 9세에 海陽 無量寺에서 就學했으나 승려로서 정식으로剃度하고 具足戒를 받은 것은 14세에 설악산 陳田寺의 大雄長老에게서였다. 그런데 陳田寺는 過智山門의 開山祖인 道義가 隱居한 곳이며 廉居(844), 體澄(804~880) 등이 師資相承하였던 過智山門의 주요 사찰이었다.<sup>10)</sup> 過智山門은 신라말기의 이른바 九山門中의 하나로 道義가 唐에 유학하여 馬祖道一의 제자인

西堂智藏에게서 心印을 받고 신라 憲德王 13년(A.D. 821)에 귀국함으로써 받아들여진 禪法에 기초한 宗派이다. 다시 말하면 過智山門은 道義, 廉居를 거쳐 普照禪師 體澄에 이르러 體澄이 신라 憲安王 3년(A.D. 859)에 왕의 청으로 진전사를 떠나 전남 장흥 過智山에 있는 寶林寺에 주석하면서 형성한 禪宗의 宗派이다.<sup>11)</sup>

一然스님이 陳田寺를 통해서 가지산문에 입산한 이후의 생애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2)</sup> 첫째, 包山의 여러 사찰에서 주석하던 시기(1227~1248), 둘째, 鄭晏의 초청에 의해 南海定林寺와 지리산 吉祥庵에 거주하던 시기(1249~1260), 셋째, 元宗의 명에 의해 禪月寺에 주석한 이후 경상도 지역의 품魚寺, 仁弘社, 雲海寺, 湧泉寺에 주석하던 시기(1261~1276), 넷째, 충렬왕의 명에 의해 운문사에 주석하다가 國尊에 책봉되고 입적한 末年까지의 시기(1227~1289)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스님이 주로 영남 세력의 중심지인 경주와 인접한 지역 즉, 현풍 비슬산에서 약 22년간을 지내면서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이 시기가 崔氏政權의 2세인 崔瑀가 정권을 담당하였던 對蒙抗爭期였으므로 소극적으로 잠적하여 지낸 까닭이라 생각된다. 고종 23년(A.D. 1236)에 봉고병이 침입했을 때 스님께서 避地하고자 文殊五字呪를 외워 영험을 본 기록은 이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둘째 시기는 鄭晏의 초청으로 南海定林寺에

서 주석하던 시기인데 스님이 修禪社와 교류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최씨 정권과 가지산문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을 초청한 鄭晏은 崔怡의 장인인 鄭叔瞻의 아들이었으며, 정안은 修禪社 2세인 慧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sup>14)</sup>

셋째 시기는 스님이 大禪師가 되고, 元宗 임금에 의해 강화도 禪月寺에 주석하면서 「멀리 牧牛和尚 知訥의 法을 계승했다」고 하며 修禪社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시기이다. 이처럼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이후 스님은 가지산문의 본래 근거지인 영남 지역의 여러 사찰에 주석하면서 가지산문의 재건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기는 스님이 운문사에 주석한 이래 국존이 되고 입적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對蒙抗爭期를 거쳐 元支配時期로 스님이 소속된 가지산문이 무신란 이후 원 지배시기 이전에 조류를 이루던 修禪社, 白蓮社를 대신하여 고려 불교계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한 시기이며, 그 주도적 역할을 스님이 담당하였다. 스님이 주석한 운문사의 제3 중창주로 일컫는 學一圓應國師가 가지산문의 중심인물이며 그로 인해 가지산문의 중심지가 영남으로 옮겨진 것을 볼 때 스님의 운문사와의 인연은 매우 각별한 것이라 생각된다.

스님의 性品은 高邁하여 대중 속에 처하여도 훌로 있음과 같고 높은 데 거하여도 낮음과 같이 하여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일일이 스승에게 배워 깨닫기보다는 스스로 통효할 정도로 명석하였다.

스님은 84세로 입적하기까지 禪道의 정진은 물론 藏經을 두루 열람하였으며, 諸家의 章疏를 궁구하며 밖으로는 儒家經典 같은 外典도 넓게

섭렵하여百家에 貫通하여 무릇 50여 년 동안 佛門에서 지도적 능력을 보였다.

스님이 가는 곳마다 서로 다투어 敬慕하되 스님의 門下에서 參學치 못함을 부끄러워할 정도이며, 스님의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수학한 인물 중 가장 두드러진 이로는 莹源寺 寶鑑國師 混丘가 있다. 그는 원래 無爲寺의 天鏡禪師에게 得度하였지만 나중에 一然스님의 門下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일찍이 元나라 蒙山德異禪師가 보내온 無極說의 意意를 터득하였으므로 자신의 號를 無極이라고까지 하였다. 현존한 『三國遺事』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混丘에 의해서 보충되고 있으며 또 讀의 여러 곳도 無極 자신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다. 混丘의 뒤를 이어 過智山門을 계승한 이로는 太古 普愚와 懶翁 慧勤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스님은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陸州의 陳尊宿의 風을 사모하여 스스로 瞞庵이라 號할 정도였다. 老齡에 이르러서도 충명이 조금도 희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게으르지 않았으니 至德과 眞慈로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평범한 가문의 태생으로 정력적인 노력형 인물이었으며 王이 국사로 책봉하려 할 때 극구 사양한 사실로 미루어 겸허하고 초탈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

다음 호에 계속

9) 靜照塔은 三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上層은 佛像, 中層은 蓮花, 下層은 八角으로 각면에 동물의 像을 새겨 놓았다. 처음 이 탑을 對案에 있는 스님의 母陵과 마주 보이는 곳에 세웠는데, 몇몇 물지각한 이들이 자기의 조상묘를 쓰고자 탑을 허물어 방치하였던 것을 1978년 인각사 경내에 옮겨 놓았다. 麟角寺誌 十六張, 蔣濟明 撰.

10) 〈襄陽 陳田寺址 造贋調查〉 歷史教育 11~12, 1969, 鄭永鎬.

11) 〈新羅下代禪宗九山派의 成立〉 한국사연구 7호, 1972, pp.93~95, 崔柄憲.

12) 〈普覺國尊 一然에 대한 연구〉, pp.51~57.

13) 「丙申秋有兵亂 師欲避地 因念文殊五字呪 以期惑應忽於壁間文殊現身曰無住居」 一然碑銘, p.4.

14) 「高麗史」 卷100 列傳 鄭世裕傳附晏傳.

## 신중 신앙과 그 변천과정

현진 / 사교파

안녕하십니까? 사교반 현진입니다.

저는 출가 전 절이라는 곳을 처음 접했을 때,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아파트처럼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늘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후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도량을 편안하게 해 주는 분이 신중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문사 도량에서 편안하게 간경을 할 수 있는 것도 화엄신중님의 보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신중신앙과 그 변천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탱화는 「화엄경」과 여러 대승경전에 나오는 호법선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불교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을 외호하는 선신의 군상을 회화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그 형태도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3·7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실 때 39위 신중이 화엄법회에 동참하여 불법에 귀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법의 호지를 서원하였기 때문에 화엄신장, 화엄성종, 호법선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중의 기원은 원래 불교 발생 이전의 고대 인도신화 속에 나타난 제석천이나 범천신앙 등 재래신이었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되어 호법선신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경전인 「잡아함경」에서는 불법이 장차 멀망하여 할 때 석제환인, 사천왕, 팔부중 등에게 정법을 바르게 수호할 것을 부축하는 설법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에서는 정각을 이룩한 부처님께서 적멸도량의 사자좌에 앉아 계실 때 금강역사, 도량신, 용신 등이 항상 주위를 옹호하였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중은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묘

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신중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불교의 수용과 함께 신중신앙이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중에 대한 신앙이 본격화된 것은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이며, 이때는 불법에 의지하여 국난을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의 힘을 빌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적 염원이 신중상의 조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유역불을 국시로 하였던 조선사회에서는 신중이 갖고 있던 외호적 기능이 법당 안의 불보살 수호라는 내호적 신앙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즉 신중의 성격과 역할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중탱화는 「화엄경」에 바탕을 둔 것으로 39위의 신중탱화가 그 원형입니다.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불보살들의 서원에 따라 구원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불교가 차츰 민간신앙과 습합(習合)되어 보다 많은 신중을 수용하게 되고 결국 일백사위의 신중탱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문사 대웅전에는 일백사위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탱화를 자세히 보면 눈에 띠게 광배를 두르고 있는 다섯 분과 두르고 있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 먼저 중앙 윗부분에 광배를 두르고 있지 않는 분이 예적명왕입니다. 예적명왕은 부정한 것을 없애므로 예적부정이라고도 하며, 여래의 화신이라고 해서 맨 윗부분 중앙에 모셔져 있습니다. 또 삼면의 얼굴에 각기 세 개씩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팔은 여덟 개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독사를 감고 온 몸에서는 지혜의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적명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마혜수라천왕과 대범천왕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제석천왕과 자미대제가 있습니다. 자미대제를 제외한 세 분은 보살상이고 자미대제는 왕관을 쓴 성군의 모습입니다.

하단 중앙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태천존 동진보안보살입니다. 이분은 새 깃털장식이 있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으며 손에는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첫 장에 나오며 경전 수호를 상징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남방중장천의 8장군 중의 한 분이며 32천의 수령이고 부처님 뜻을 받아들여 출가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떠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사천왕, 성군, 명왕, 천녀 등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호법신들은 불교 고유의 신중들뿐만 아니라 인도신화에서 기원한 인도 토속신과, 중국의 북두대성,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신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토착신앙의 불교적 습합을 의미하며 아울러 토착신앙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수용의 면을 엿보게 합니다.

또한 신중단에는 사시예불 때 상단에 올렸던 마지를 퇴공하여 반야심경을 봉독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먼저 공양을 드신 후에 그 물려받은 것으로 공양을 하겠다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으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밖으로는 불법수호의 역할을 원력으로 삼고서 불법을 믿고 따르는 사부대중을 보호하는 호법선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차례법문을 준비하면서 신중신앙과 그 변천과정을 통해 제가 이렇게 무장무애로 간경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불보살님과 화엄신중님의 가파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대중스님 여러분! 정진여일 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일 년 칠 개월간

영덕 / 운문승가대학 강사



지난 일 년 칠 개월의 시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고 인정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극복하는 일과 '척보면 아는 안목을 얻는 일'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뚫는 낙숫물의 반복과 한결같음, 침묵과 눈물과 용서와 관용과 두려움과 고통과 신음같이 부르던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를 향한 긴 기도로 견디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끝자락에서 느끼던 속삭임은 '순리대로 잘 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최선을 다하라.' 내밀하신 약속은 힘이었고 제 의지의 전부였습니다.

도망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제 속에 응결된 원석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독백입니다. --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움, 널리 알려진 선행이나, 오래 전해지는 위대한 업적들 그리고 빛 속에 찬란한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긴 인욕이며, 아픔이고 눈물이며 주름과 늙음이다. 오랜 선집과 애태움과 수고로움이며 괴롭과 미안함, 그리고 고민과 슬픔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참음이다. 잠룡(潛龍)의 긴 고뇌와 우울과 한계상황 돌파와 기다림, 모든 것을 견 목숨의 값이다. 참고 견디는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용웅 터져 나오는 눈물을, 용웅 소리로 삼키며, 입술을 깨물며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박수를 칠 때 아낌없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함께 수회동참 하여야 한다. 그 노고의 값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때 배나 값진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쁜 꽃을 볼 때, 잘 영근 파일을 떨 때, 푸른 벌판의 장관을 볼 때,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을 볼 때, 우리는 먼저 꽃과 파일과 푸름을 본다. 그 향기로움과 싱싱함과 젊음과 아름다운 기운을. 그러나 나는 이제야 알겠다. 낙엽의 뒷모습과 흙의 노고와 거름의 썩음과 아버지의 굵은 손마디와 어머니의 쭈그러진 가슴과 세상 모든 일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고를. 돌아보면 늘 선집에 뒤채이며 날밤 새운 푸시시 함으로 한 철 내 입어 무릎 나온 바지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신은 뒤꿈치 빠진 양말과 함께 홀짝 그렇게 가벼운 이십 년이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생에 청정한 몸과 청정한 업과 성불과 보리행과 보살도를 가슴에 품고 다만 걸을 수 있는 날까지 걸어갈 뿐! 보실행을 맹서한 자만이 보살도를 성취하듯, 고민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길. 하는 자만이 이루며 걷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

팔순의 온사스님은 '너 얼굴 보는 게 내 기쁨인데 이제도 못 오느냐.' 하십니다. 올 생신 때는 만사를 놓고 다녀오려 하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초로(初老)의 얼굴 속에서 당황합니다. 아직은 어른 앞에서 조금 더디게 늙어야 하는데. 내가 늙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품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순간순간 행간 속에서 놓쳐 버린 촌철살인의 일침들은 다 무엇인지. 우루루 빛바랜 채 저 너머에 서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서성이며 달빛 아래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 년하고 도 칠 개월, 지난한 작업, 이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관세음 관세음이시여 이 도량에 납시여 저와 함께 이 일을 성취하사이다.

대현(大賢)스님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마지막 작업을 손질하며 끝으로 한 구절 옮겨보며 긴 독백을 맺습니다.

'다함 없는 계에 대한 원을 놓아 버리지 않는다면 이생이 다하도록 범함이 없으리니, 끝이 없는 계(戒)이기 때문이다. 생을 바꾼다 하여도 계는 항상 따르며, 돌고 돌면서 증장하여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 마치 강물이 밤낮 머무르지 않고 돌고 돌아서 저절로 큰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이.'

물길은 펫길이고 강이고 바다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맑히며 유통하는데 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상서 계율팀 원철1, 2 성해 원창 행오스님에게 미안합니다. 제 몫의 일이 늦어져서. 이 작업의 완성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우문 석도승진 백비 법전 찬영스님,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

2009년 11월 17일

영덕 화남

# 현대 사회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불교학적 접근과 웰다잉

등 광 / 대교과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현대 사회의 자살과 우울증의 현주소
    - 1) 현대 사회의 현황
    - 2) 우울증의 정의와 원인 및 영향
    - 3) 자살의 정의와 원인 및 자살에 대한 견해
  - 2. 불교학적 관점에서의 자살과 우울증
    - 1) 불교학적 관점
    - 2)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자살과 우울증
    - 3)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불교학적 해결방법
  - 3. 웰다잉(Well-Dying)
    - 1) 웰다잉의 정의와 영향
    - 2) 불교학적 접근의 웰다잉
- III. 결론

## I. 서론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자살에 대한 보도를 흔히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과 인사들이 차례로 자살하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여겨져 왔고 어느 인간 사회에서나 자살은 있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와 자살은 일종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전통적으로 '자살

대국'이라 알려진 일본을 훌쩍 넘어선 상태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성적비판을 원인으로 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부작용으로 노인들의 자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살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연령층에서 광범위하게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죽음 문화 부재 현상과 죽음에 대한 오해에서 야기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글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되어 버린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원인을 밝히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기경전에 나온 경(經)을 중심으로 자살에 대한 불교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죽음의 정의에 대한 바른 인식의 유추를 통해 '웰다잉'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II. 본론

### 1. 현대 사회의 자살과 우울증의 현주소

#### 1) 현대 사회의 현황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만큼 자살 충동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절실히 지속적일 경우이다. 현실에서의 자살은 삶의 벼랑 끝에 몰려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절망과 무력감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사회에서는 하루 36명이 자살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0년에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14.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근 10년 사이에 두 배 반가량 증가한 것이다. 98년 IMF 이후 급증하다 차츰 감소하더니 2002년부터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으로 계산했을 때 21.5명으로, OECD 평균인 11.2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자살률 순위로는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이다.<sup>1)</sup>

게다가 소외된 저소득층이나 노인, 청소년 등이 자살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살은 '개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문제'이다. 자살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 사회의 '사회문제'가 되어 버린 자살과 우울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2) 우울증의 정의와 원인 및 영향

우울증은 자살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다. 실제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자살로 이어지는데 이미 의학적으로 자살 원인의 80%라고 하였듯이 우울증 증세는 심각하다. 우울증 환자들이 일상적인 상황조차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불안, 신체증상, 무감동, 인지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증상으로 구성된 질환으로 치료율이 70~80%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주요 원인 중 공통적인 점이 모두 우울증 증상을 초기에 보였다는 것에 있다. 이런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사회심리학적 원인, 생활 및 환경적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불교학적 관점에서 본 원인을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업연설<sup>2)</sup>이 있다 하겠다. 제8아뢰야식에 입력된 정보는 뇌세포에 영향을 주고 그밖에 유전 인자의 영향, 佛性(生命力)의 개발 및 진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숙세에서부터 쌓여져 온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잠재의식과 업(카르마)의 작용에 영향을

받은 뇌세포들이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감기'를 앓게 되고 그로 인해 자살이라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 자살의 정의와 원인 및 자살에 대한 견해

자살(suicide)의 어원은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을)와 caedo(죽이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에서 왔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살이란 당사자가 자발적, 의도적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현실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비사회적 행위의 전형적인 것이며, 죄의식에서 비롯된 자신에 대한 처벌이나 자기주위의 중요한 사람에 대한 용정, 또는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퇴행행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런 자살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견해는 오래전부터 많았다. 자살은 생명에 대한 파괴적 도파라는 주장과 자기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가진 인간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때도 있었다. 이 외는 다르게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극단적 삶을 선택했던 자살자들의 개인 윤리적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 외에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살의 이유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살을 범하는 사람의 생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거의 모든 경우 국도의 불안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불안은 모든 것에 대한 절망, 앞날에 일어날 불행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는 모두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고통과 번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자살의 원인과 동기가 불교 수행의 동기와 일치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행도 자살도 둘 다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1) 2000년도~2007년 통계청 자료에서 참고함.

2) 업연설(業緣說): 연기론(緣起論),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교리 체계. 아함중의 십이연기(十二緣起), 구사중의 업감연기(業感緣起), 유식중의 뇌야연기(賴耶緣起), 화엄중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진언중의 육대연기(六大緣起) 등이 있음.

## 2. 불교학적 관점에서의 자살과 우울증

### 1) 불교학적 관점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보는가?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불교는 당연히 자살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분율》<sup>3)</sup>이나 《십송율》<sup>4)</sup>과 같은 율장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비구들이 부정관(不淨觀)을 뒤다가 죽기를 바라고, 죽음을 친탄하여 칼로 자살하거나 독약을 먹거나 목을 매거나 언덕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심지어는 '남에게 죽여 달라고 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 마저 있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즉각 자살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부정관은 탐진치(貪嗔痴)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함이자 자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나 남의 목숨을 해치거나 남을 시켜 그렇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금했다. 이것이 불살생계(不殺生戒)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 2)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자살과 우울증

이런 생명 존중의 개념 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부처님이 자살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종교적 이유에서였다. 원시 불교경전인 잡아함의 《발가리경》<sup>5)</sup>, 《차마경》<sup>6)</sup>, 《천타경》<sup>7)</sup> 등은 불치병에 걸린 비구들의 자살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인의 자살은 용인되지 않았다. 다만 아라한과를 중득한 자에 한해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셨으나 자살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 즉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일체중생은 모두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 있고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는 것은 바로 불성의 차이가 아니라 무지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불

교는 인과응보의 업보교리로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자살이란 고통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을 야기하는 악행이라는 것이다.

### 3)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불교학적 해결방법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자살과 우울증의 해결방법으로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 해결책을 불교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불교적 해결 방법은 바로 명상 수행이다. 최근 들어서는 참선, 명상과 같은 불교수행법으로 오랫동안 정신수련을 한 사람은 뇌 활동이 바뀌어 그런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수준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불교 안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길을 찾은 것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 문제를 불교적으로 이해하고 정신 치료를 위한 불교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해 볼으로써 자살에 대한 주변인들의 대처 방안과 현실적인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는 본인이 느끼는 현재의 피로움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끝내려고 하는 무지(無知)를 바로 보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나서 고통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없어진다면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도 설하셨듯이 본인의 업에 따른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므로 문제는 달라진다. 업파에 따른 사후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불교야말로 자살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적인 접근에서의 자살과 우울증의 해결방법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살의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행한 선업과 악업은 그림자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따라가므로

로 선한 행위(善業)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설하신다. 이러한 선업을 짓는 것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며 반대로 악업을 짓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자살은 악업으로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3. 웰다잉(Well-Dying)

#### 1) 웰다잉의 정의와 영향

그럼 지금부터는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결하고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웰다잉이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1세기 후반에 들어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웰빙(Well-Being)이 잘 사는 방법으로 유기농 음식, 규칙적 운동, 좋은 환경 등 다소 물질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면, 웰다잉은 하나뿐인 생의 가치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신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몹시 불안하다. 죽음문화의 상실, 죽음관의 부재, 아니면 건강한 죽음 이해의 소멸은 곧 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의 상실, 생명에 대한 의경의 포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학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죽음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결코 향상될 수 없다. 이제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삶의 궁극적인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죽음문화 성숙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 2) 불교학적 접근의 웰다잉

죽음은 어느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인연법에 의하면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그 인연이 다하게 되면 저 세상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죽음이라 하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라 보지 않고 또 다른 삶으로의 출발을 의미한다. 그 예를 《대반열반경》, 《광명동자인과경》, 《티베트 사자의 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윤회를 통한 다음 생을 믿고 있는 불자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다음 생으로의 여행이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교학적 접근의 웰다잉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도록 하고 죽음을 한층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돋는 삶의 준비교육이고, 자살예방교육이기도 하다.

## III. 결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우리 몸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우리 마음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 자살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평소에 체득하여 그 어려운 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평소 명상의 생활화를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자신의 내부에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때 초기에 다스릴 수 있다. 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앞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불교가 가진 업, 윤회, 해탈의 신념체계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만들어 주고, 고통 속에서 치유의 기쁨을 찾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모든 진실과 근원을 바로 보는 부처님의 혜안을 이어받아, 외부 또는 내부에 의한 그릇된 결정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이생에 본인의 인과에 수순하며 내 업연이 무르익어 자연스레 또 한생의 윤회를 마감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오진탁,『죽음, 삶』 존재하는 방식, 청림출판, 2004, 「웰빙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불교평론』, 겨울 제7권 제4호, 2005.
- 석법정,『사망학』, 도서출판 운주사, 2004.
- 전현수,「자살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와 대처」, 『월간 불교와 문화』, 통권 64호, 2005.
- 안양규,「누가 허물없이 자살할 수 있는가」, 『불교평론』, 겨울호 통권 제17권, 2003.

3) 사분율(四分律): 4대 계율서(四大戒律書)의 하나. 부처님 열반 후 100년경에 담무덕(彌無德)이 상좌부(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뽑아 옆은 율문불서(律文佛書), 총 60권으로서 현재 소승불교(小乘佛教)의 계율서임.

4) 십송율(十誦律): 설일체 유부(說一切有部)가 전한 불교의 율장(律藏), 총 61권으로 구성.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번역하였으나 완역 하지는 못하고 뒤에 비마라차(卑摩羅叉)가 구마라습의 한역본을 보충하여 61권으로 완역함. 《사분율》과 수가 약간 다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함.

5) 『잡아함경』 권47 1265경.

6) 『잡아함경』 권5 103경.

7) 『잡아함경』 권47 1266경.



## 대칭과 반야의 세계

- 대칭 관점에서 반야심경 해석 -

박문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존재, 대칭에서 와서 대칭으로 가다

반야심경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마하트마 간디의 마하, 위대하다는 뜻이죠.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으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바라밀다는 도파인이라고 옮기죠. 심경은 핵심이 되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즉 반야심경은 '위대한 지혜로써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가는 요점을 설한 경'이라는 말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리를 행할 때, 오온五蘊(태어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일체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이 모두 공空하다는 것을 깨뚫어 보았을 때 일체의 고통과 액란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오온은 색色(물질적 접촉자극), 수受(감각 자각), 상想(인식작용), 행行(의지적 행위), 식識(의식작용)이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오온 중의 첫 번째가 색이지 않습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 또한 색과 다르지 않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 空即是色)

색이 곧 공하고 같고, 공이 곧 색하고 같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즉시공 공즉시색(受想行識 亦復如是 色即是空 空即是色)

색뿐만 아니라 오온의 나머지 수, 상, 행, 식 또한 그러하죠.

사리자 시제법공상(舍利子 是諸法空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부처님이 사리자를 불러 모든 법이 스스로 공하여 실체가 없어지는 제법의 공한 모습, 즉 시제법공상은諸法空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공의 본성을 말하죠.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시제법공상에서 '법'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반야심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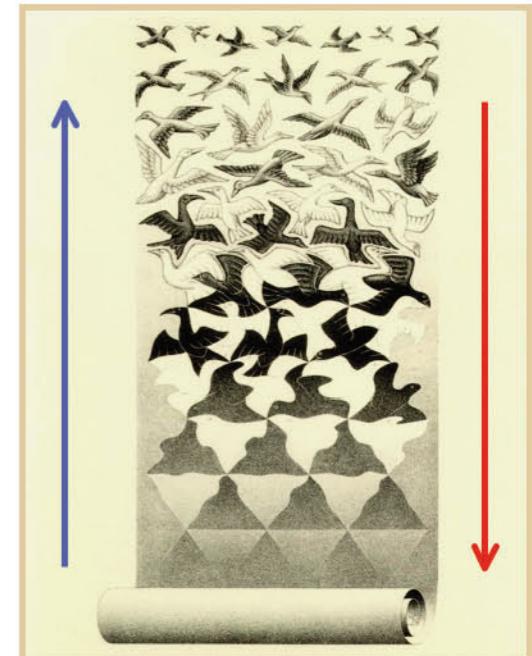
태어나고 죽는 것은 시간과 함께 일어납니다. 여기서 불생불멸은 노 타임 no time, 시간이 없는 겁니다. 불구부정은 노 밸류 no value, 가치 체계가 아니라는 것 이죠. 의식이 나와서 깨끗하다든지 더럽다든지 가치판단을 하는 세계가 아닌 겁니다. 부증불감은 노 디퍼런스 no difference, 차이가 없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대칭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 타임이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 디퍼런스면 차이, 불균일 상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미분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gradient( $\nabla$ , 시공간적 물리량의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연산자)나 라플라시안 Laplacian( $\nabla^2$ ). 아주 위태롭지 않습니다. 어디론가로 넘어질 것 같죠. 이것이 벡터의 미분 기호입니다. 공간의 x축 방향에서 디퍼런스, 불균일이 있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균일한 에너지를 미분하면 힘이 나오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에너지 디퍼런스가 뭡니까. 일반 감각, 특수 감각의 감각이죠. 오온에서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수受에 해당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미각은 화학적 에너지 디퍼런스, 청각은 공기 진동의 기계적 에너지 디퍼런스, 후각은 화학적 에너지 디퍼런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은 오로지 차이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균형감각의 경우도 회전의 등속운동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가속도, 즉 속도의 차이만 인지할 수 있을 뿐이죠. 동일한 움직임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디퍼런스, 차이가 있어야만 그것이 있음, 존재감을 느끼는 것 이죠. 운도의 차이, 압력의 차이, 화학적 에너지의 차이……. 차이만이 우리 감각기관이 접수하는 것이고, 차이가 없는 세계라면 감각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죠. 에너지 차가 없는 세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부증불감의 세계에서는 감각기관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에서 作 〈해방〉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일으키는 변형  
대칭과 대칭의 붕괴 결과로 개별화가 출현함

그러니 색, 수, 상, 행, 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공인 거죠.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

무안계 내지무의식계(無眼界 乃至無意識界)

공 때문에 인이비설신의의 감각기관도 없어지고 눈에 대해서 색, 귀에 대해서 성, 코에 대해서 향, 혀에 대해서 미, 몸에 대해서 촉, 의식에 대해서 법이라는 감각기관의 대상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안의비설신의의 감각기관과 색성향미촉법의 감각 대상이 만나서 형성되는 세계인 안계眼界, 시계視界, 촉계觸界의 장장도 동시에 사라져야 하죠. 그에 맞선 끌로 색성향미촉법이 사라집니다.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이 외부환경과 만나서 생성되는 세계상이 동시에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무무명 역무무명진(無無明 亦無無明盡)

그리고 무명도 사라집니다. 무명이 다하여 사라진다는 것도 없죠.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변화이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죠. 사물과 사건의 변화에 의해서만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12연기의 마지막인 늙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어지고, 또한 늙고 병들어 죽는 현상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시간의 축에서 빠야 합니다.

무고집멸도(無苦集滅道)

사성제(고 苦, 집 集, 멸 滅, 도 道 등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네 가지 교리)도 여기에서 깨어집니다.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보리살타 의반아바리밀다 고심무가애(菩提薩陀 依般若波羅蜜多 故心無罣碍)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顛倒夢想)

앓도 없고 무엇을 얻었다는 것도 없다. 뭔가 앓거나 획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살타, 즉 깨달은 중생은 반야바리밀다에 의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마음에 공포가 없고, 공포가 없으니 반야바리밀다에 의지하여 오온이 공한 것을 페뚫어 보고 거꾸로 된 생각, 꿈같은 생각을 멀리한 것이죠.

구경열반(究竟涅槃)

그래서 보리살타는 궁극적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열반이 바로 고통이 사라진 상태죠.

삼세제불 고득 아녹다라삼막삼보리(三世諸佛 故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삼세제불(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나는 모든 부처)은 반야바리밀다, 즉 존재의 모습은 인과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일 뿐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인연소기因緣所起로 존재를 보는 것을 지혜라 하고, 그 지혜로 고통의 소멸을 이루죠.

완벽한 대칭의 세계에서는 자아 역시 존재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삼법인三法印(불법의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 제법무이諸法無我.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주체성, 즉 나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죠. 인과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공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제2의 석가라고도 하는 나가르주나(용수)의 깨달음의 사상, 즉 반야사상의 요점이죠.

인과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세계상, 인연소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세포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다 독립된 생명체였는데 진핵세포로 오면서 도킨스가 이야기했던 위대한 랑데부를 통해서 세포 내 공생관계를 이루한 것이죠. 완벽한 하모니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포 속에 많은 소기관들이 있고 또 그러한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인데,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세포를 내세워서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작용일 뿐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불교의 인연소기, 제법무아야말로 참으로 맞는 이야기죠. 모든 존재는 시공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다발일 뿐,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지 반야바리밀다(故知 般若波羅蜜多)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능제일체고 진실불허(能除一切苦 眞實不虛)

그러므로 반야바리밀다를 알아라. 이것은 위대한 주문이고, 밝은 주문이며, 이것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주문이다. 그래서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제아제 바리아제 바리승아제 모지사비하(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薩婆訶)

다시 반야바리밀다의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반야경의 디라니는 마치 물리학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명의 바람에 의해 생멸문의 유전연기가 긴 생명의 역사를 만들죠. 그런 무명의 업력이 삼세육추三細六麁에 이르러 의식까지 생성합니다.

반대로 본원으로 즉 대칭을 회복하는 흐름도 존재하지요. 업상을 차례로 제거하여 모든 생성의 움직임 바 없는 진여로 가는 흐름인 환멸연기. 대칭이 깨어져서 의식까지 나온 몸뚱어리를 가진 존재가 자신의 근원인 대칭을 바라보고 다시 그곳으로 가기를 염원하는 주문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칭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으니 무엇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공의 세계, 시작도 끝도 차이도 없는 완전한 대칭의 세계입니다.

박문호 님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 에이엔엠(Texas A&M)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이다. 대전 대역 연구단지의 독서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균형, 학습독서로 천문, 우주, 뇌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독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학을 아는 오피니언 리더가 많아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저서로는『뇌, 생각의 출현』이 있다.

## 참다운 공부로 이끈 여정

- 차향 가득 법당을 나누는 곳, 다솔사와 보안암을 다녀와서 -

종호 / 사교과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 설렐 반 기대 반으로 정신없이 짐을 싸서 경남 사천에 있는 다솔사로 향했다. 출발할 때는 날이 흐렸으나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도착했을 때에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다솔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아기자기하고 웬지 솔방울과도 같은 느낌이 밀려왔다. 그런 나의 느낌과 하나 됨을 말하듯, 다솔사는 아담하고 아늑하며 정갈한 모습이었다. 사중 일을 맡아 보던 보살님의 안내로 준비해 주신 점심공양을 마치고 주지스님을 뵙었다. 스님은 다솔사에서 직접 재

배한 차를 달여 주시며 사찰소개를 해 주셨다.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4년(503)에 범승 연기조사가 창건한 역사 깊은 고찰이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된 대양루를 비롯해 적멸보궁, 응진전, 명부전, 선실의 요사채가 있으며 이곳의 대양루는 대웅전 앞의 건물로 2층 누각이다.

적멸보궁은 원래 대웅전이라고 했는데, 1978년 2월에 대웅전 삼존불상 개금불사 때에 후불탱화 속에서 108과의 부처님의 사리가 발견됨에 따라 적멸

보궁이라 명칭을 바꿨다고 한다. 그 후 동양 최대 규모의 적멸보궁 사리탑을 건립하여 불사리를 봉안하였으며, 보궁안에는 열반에 들기 직전의 부처님 모습인 와불상이 있다. 와불의 웅장함과 연꽃문양의 유리를 통하여 부처님 사리탑이 보이는 법당의 모습!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법당구조로 잠시 부처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적멸보궁의 뒤로 쪽 펼쳐진 차밭. 차밭이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 몰라도 '한국의 차도'를 집필한 차성 효당 최범술 스님이 주석하면서 근대 차 문화를 이룩한 효시적인 터이다. 오래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초록빛으로 물든 차밭에서 다향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곳 다솔사에는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만해스님(한용운, 1879~1944)이 머물며 수도한 진전이 있으며, 농촌 계몽운동을 펼친 소설가 김동리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머물렀다고 한다. 그는 이때 인연으로 1963년 다솔사를 무대로 하여 '동신불'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니, 작지만 작다고 할 수 없는 다솔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다솔사 경내를 돌고 난 다음 산내암자인 보안암을 향해 산길에 올랐다. 약 40분 정도 오르다 보니 비가 와서인지 산과 마을의 맑고 깨끗한 조화로운 경관이 우리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적석식으로 쌓아올린 보안암의 외형이 눈에 들어왔다. 외벽까지 도착할 때의 길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그러길 잠깐, 드디어 보안암 앞마당에 들어섰다. 단정한 요사채와 둠형식으로 돌을 쌓아 만든 벽 가운데 자그마한 철문이 보였다. 살짝 문을 열자 근엄한 모습의 미륵세존을 볼 수 있었는데, 작은 법당에는 한두 사람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법당은 주위에 놓

인 인등과 연꽃등으로 아담하게 장엄되어 그 규모에 비해 부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지금도 불국사 석굴암보다 200년 앞선 현존 최고의 석불 미륵세존을 모신 그곳을 생각하면 작은 공간 큰 느낌의 그 장엄함과 웅장함에 미소를 띠게 된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 뿌리 내려 살 수 없으며 수행자는 참다운 공부를 해야만 한다던 주지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아름다웠던 깊은 여행을 되돌아본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함을 간직하게 만드는 이유 …

그 이유를 그리며 발길을 돌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본다. 아무리 힘이 들어 쓰러질 것만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 발자취는 훗날 공부에 미친한 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 아닐는지 … .

좁고 곧은 그 길을, 오직 나아가야 할 뿐인 그 길을 향해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나의 공부이자 의무가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



## 나를 만나러 가는 길

- 김형경의 『사람풍경』을 읽고 -

지 응 / 보현율원



『사람풍경』은 김형경이라는 소설가가 쓴 심리 여행 에세이다.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면 주저 없이 정신분석을 받은 일과 혼자 여행한 일이라고 한다. 그녀는 집을 팔아 혼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람 사는 세상, 그 온갖 풍경들을 보며 그것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객관적인 시점으로 세상을 읽어 나간다. 문학적 향기가 나는 정신분석서로서 깊어가는 가을, 자신의 삶을 반조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추천해 본다.

운문의 학인시절, 도반들과 한 방에서 한 솥밥을 먹으며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로 때론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던 어느 날 쳐진 소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삶이란 나 스스로를 치유해 가는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유년부터 떠남을 꿈꾸었다. 여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차에 오르는 것은 늘 즐겁고 가슴 뛰는 일이어서 오죽하면 인도에서 24시간 기차를 타고도 내릴 때 서운할 정도였다.

"현실의 삶에 안착하지 못하고 낯선 곳을 찾아 나서는 여행 자체가 내게는 총체적인 방어행위였던 것이다. 삶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 내면의 고통과 직면하지 못해 어디론가 도망치고자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감정들이 있다. 사랑, 분노, 불안 같은 감정들이 유아기 때부터 내면에 존재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나는 불안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다. 너무 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조용한 시골이어서 낮에도 차가 뜸한 길옆에 살면서, 어린아이가 밤늦도록 잠

못 들고 어쩌다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듣곤 했으니 말이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압도되지 않기 위해 분열, 투사, 동일시 같은 생존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분열은 불안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선택하는 생존법이다. 투사란 '스스로 수용할 수 없는 욕망, 생각, 느낌을 주체의 바깥, 즉 다른 주체에게로 옮겨놓는 방어기제'라 한다. 분열의 심리작용에 의해 나누어진 부정적인 영역의 감정들이 다른 대상에게 옮겨져 표출되는 방식은 대체로 혐오, 경멸, 비난, 분노의 방식이다. 동일시는 한 개인이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자기 정신의 일부로 만드는 내재화의 한 방법이다. 유아기에 만들어지는 미숙하고 왜곡된 性情들을 성인이 된 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긍정적인 덕목으로는 건강한 자기애, 자기 존중, 인정과 지지, 친절, 공감, 용기, 변화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정한 자기 자신에 이르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들과 마주하며 그것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었음은 감사한 일이다. 이제는 내가 세심하고 꼼꼼한 일은 잘하고,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일은 서툴고, 어느 때는 부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해 내 모든 걸 부처님께 바치다가도 계으름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한없이 미루기도 하는 그런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점들도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망막에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한 시간에는 나를 이완시키며 여행을 하곤 했었다. 인도 배낭여행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마주하는 시간이었고, 도반들과 떠났던 만행에서는 어른스님들께 좋은 말씀 듣고 다시 재발심을 다지기도 했었다. 일상생활에서 늘 떠남을 염두에 두고 객관화하고자 하는 시간들

속에서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자연스레 삶이,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여유로워졌다. 그런데 절집 살림살이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또 다른 '스님'이라는 상이 더불어 쌓인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쉬운 일 이기도 어려운 일인지도 했다.

"타인에게 충고하기 좋아하고 남을 가르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심리도 방어의식이다. 그런 이들은 조언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지배할 수 있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망을 얻고 있어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타인의 삶에 충고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상대도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도 알고 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무심결에 충고 내지 가르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그저 들어만 주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 우리는 누구나 佛性의 존재다. 각자 본인들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아가 그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내면에 닿는 것,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는 일, 본성의 자기와 마주할 때 우주적인 풍경과 하나가 될 것이다.

가을에 주어지는 짙은 방학에는 결망을 메고 별로 가 본 적이 없는 전라도를 순례하고 지리산에 가려한다. 허허로운 마음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것과 마주하며 부처님과 함께 하는 내 여정은 끝이 없을 것이다.

## 서원의 바다

- 지장보살의 화현 김교각스님 -

지호 / 사집파

이른 새벽 운문사. 여름 한 철 지장전에서 새벽마다 금강경 독송기도를 하며 보냈기에 백중 회향을 맞는 마음에는 아쉬움이 앞서 있었다. 하지만 지장전 한 쪽을 기득 메운 위패 속 많은 영기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음보다를 수는 없었으니, 아마도 지장보살님과 함께 한 지난 시간 덕분이 아닌가 한다.

돌이켜 보면 지장보살님은 나를 출가로 이끌어준 분이라 할 수 있다.

공부만 하던 내가 갑자기 출가를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서서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여러 전각 중에서도 처음으로 들어간 법당은 바로 지장전이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미소 지으신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인연으로 출가하여 행자시절을 보내고 새 스님이 되었을 때, 은사스님을 통해 지장보살의 화현이라 칭송받는 신라의 구법승 김교각스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김교각(金喬覺, 696~794)스님은 '쌀 보내준 은혜에 보답함(酬惠米)' 이란 시에서 비단 옷 납의로 갈아 입고/불법을 닦으려 바다 건너 구화산에 이르렀네/나 본래 왕자의 몸으로/수행의 길에서 오용지를 만남 이여/라고 자신이 신라의 왕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부처님이 그려하셨듯 왕자의 지위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고행의 길을 택한 스님은 용모는 못 생겼다고 하지만 그의 자비로운 마음에는 따를 자가 없었고,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으며 7척 거구로 열 명의 장부를 대적할 만한 힘을 지녔다고 한다. 스님은 24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구자산(九子山)에 이르러 수행터를 삼았다. 이후 구자산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이 유람차 왔다가 아름다운 아홉 개의 봉우리를 보고 마치 연꽃송이와 같다고 칭한 것이 유래가 되어 구화산(九華山)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곳에서 스님은 정진 수행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시주를 통해 화성사(華成寺)라는 절을 짓고 대중을 모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안록산의 난을 맞아 백성들은 물론 절집의

살림도 피폐해짐이 극에 달하자, 스님은 대중과 함께 손수 황무지를 개간하고 밭을 일구었다. 이렇게 수행자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대중을 이끌며 몸소 실천하고 꾸준히 수행하는 스님의 법력은 자연스레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물론 멀리 신라에서까지 스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오는 수행자들이 해 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렇게 구화산에 머무른 지 75년째 되던 해, 세남으로 99세에 이른 스님은 대중을 모아놓고 “내가 열반에 든 뒤 내 육신을 다비하지 말고 3년이 지난 뒤 열어보라. 만일 3년이 지나도록 육신이 썩지 않았으면 그대로 개금하라.”며 작별을 고한 다음 가부좌를 한 채 열반에 드셨다.

스님의 유훈에 따라 탑 안에 봉안하였던 함을 3년 뒤 다시 꺼내 열었을 때 은은한 향내음이 구화산을 은통 뒤덮었다고 한다. 가부좌한 모습과 얼굴빛마저 3년 전 그대로임을 확인한 제자들은 구화산 남대에 육신전이라는 법당을 짓고 개금한 교각스님의 등신불을 모셔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화산 동쪽 골짜기, 절벽 끝의 작은 동굴 속에서부터 화성사의 큰 대중에 이르기까지,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기리며 수행 정진함에 한 치의 게으름이 없었음을 상징하듯 살아서도 ‘지장(地藏)’이라는 호를 쓰셨던 스님은 그렇게 등신불이 되어 지장보살의 화현이라 세간에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이니 지옥이 평비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

시작도 끝도 없는 길.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수행자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중생 제도의 길 위에서 한결같이 나아간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이러한 실천이 곧 보살의 행인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성취에 앞서 보살의 대원과 마음씀을 배워야 한다.

한 방울의 물은 큰 힘을 갖지 못하지만 방울방울이 모이고 또 모이면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그리고 바다는 가히 만물을 포용하여 모든 생명을 살려낸다. 한 사람이 가진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서원이 거듭 거듭 모이면 마침내는 지장보살과 같은 대원의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빛에 대비원력의 씨앗을 심어야 하리라.





## 신발 벗고 맨발로 다녀라

정인 / 대교파



이번에는 '포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템방을 해 보자는 의견을 내었다. 국내외적으로 불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는 곳이나 스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음사의 우학스님을 알게 되었다. 스님은 사진으로 보던 것과 같이 날카롭지만 포용성 있는 눈매를 가진 분이었다. 단 일분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바빠 보였으므로 학인 입장에서 궁금한 점과 서툰 질문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님께서는 불교에 입문했을 초창기 때부터 포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확실한 개념과 신념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불교가 전근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없는 게 많아서 행자 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불교가 현대화되어야 한다. 시대를 외면하면 더 이상 존립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때는 포교를, 愿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 스님들의 마인드가 수행과 포교를 분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가자들의 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 불교가 힘들 것이다'는 생각에 처음 개설한 게 불교학교였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고. 어느 정도는 내 생각이 적중하면서 성공을 한 편이죠. 그런데 시내에 있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일년에 한두 번은 꼭 인거를 나요. 에너지 충전도 되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이 사실 있어요. 나는 어느 한 쪽만 고집하는 것은 불교적인 것이 아니

라고 봐.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뒤, 자연스럽게.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가자들 뿐 아니라 스님들에게도 포교가 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재가자를 일깨워서 스님이 되게 하려는 포교도 중요하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스님들의 생각을 일깨우는 것도 포교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먼저 행자도 여기 저기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현재 행자가 17명 있는데 얼마 전에 출가학교에서 3명이나 출가했어요. 노력하지 않고 스님 수를 늘릴 수 있느냐 이거라. 또 스님들을 상대로 포교한다는 것이 교과과정 전체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 그러한 입장에서 이거는 뭐 들어와서 뭘 해 보려고 하면 틀에 짜여서 꼴찌를 못해. 옛날에는 돌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일도 해보고 했거든. 지가 좋아하는 전공분야를 택해서 가면 되는데 딴 거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잘 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실천불교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 그러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획일화되고 있어.

부처님은 당대에 돈키호테 같은 분이셨다. 그런데 관습과 수행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범하지 않은 과감성과 결단력으로 어떻게 부처님은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융합해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현대 출가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7층을 통털어서 스님들 방을 40개 만들어

서 현대식 강원을 열고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제도가 너무 까다롭고, 둘째는 스님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해야 했는데 나중에는 상좌를 받는 것을 집중적으로 했지요. 특히 스님들 방사가 현대화되어야 해요. 나는 행자들도 교육할 때는 불러내서 교육시키고 자유시간도 존중하고 있어요. 현대적인 정서를 이해해 줘야 하잖아. 다른 종교인들이라고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없겠노. 그들은 생각이 짧은거라. 근데 불교는 첨단문화 인터넷문화에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라. 스님들의 교육구조나 교육방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불교가 위태로워요.

관음사의 LCG프로젝트는 6,7개 되는 법당에 스크린이 구비되어 있고 동시강의가 되어서 구미, 철곡 등 국내 뿐 아니라 관포, 중국, 칭타오까지 법문이 연결되어 있었다. 현시대의 문화를 잘 활용하는 것이 傳法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체험하게 되었다.

포교라는 말도 그렇지만 전법이라는 말이 맞는 거라. 부처님은 제자 60명으로 전법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부처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 스님들이 고상한 것만 생각하는 거라. 아주 부처님처럼 신발 벗고 맨발로 다녀야 돼.

포교란 '종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신앙의 道를 전하는 것', 또 전법은 '佛法을 전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불법을 전하는 데 포교보다 더 불교적인 언어가 없을까? 하는 문제로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흔히 대하던 전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 나는 그 사실에 자못 놀라웠다.

운영하실 때 스님의 좌우보처가 되어준 분은?

그냥 처음부터 나 혼자, 정신적으로도. 왜냐

하면 내가 가진 생각을 거의 100% 동의해 줄 사람은 헤아리니 부터 어차피 없거든. 그래서 나는 아예 의지 안했어요. 신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재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한 사람의 시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공부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게 수행과 교육, 문화와 봉사 이 네 가지를 하는 거라. 이 네 가지를 아울러서 현대식 총림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으면 불교는 이 사회에서 처질 수 밖에 없어.

스님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셨다. 무소의 뿔은 혼자 움직여지지 않는다. 무소의 마음과 다리와 눈과 근육 등 모든 움직임의 조합으로 행한다. 불법을 열망하는 존재와 그 가치가 분리되지 않은 이 시점에 관음사가 서 있었다.

전법을 위해 '각 사찰에서 이것만은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첫째는 각 절마다 신도들에게 기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불교를 실천하는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좀 많이 시켜야 해요. 그것으로 사찰이 신도들에 의해 움직여 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수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경과 절 등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돼. 신도들의 수준을 높여야지 신세대들도 돌아오는 거지요.

도반스님과의 대화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사찰의 식당문화이다. 먹는 것에 치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불자들의 불교적 안목의 고양과 실천은 멀어진다는 생각이다. 시간과 공간을 조금 줄인다면 각 사찰에서 조그마한 도서관 정도는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않을까?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불교에 대한 무지를 줄이려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오히려 불자들의 정신을 살찌우고 불교의 부흥을 가져 온다고 본다.

얼마 전 해외에 다녀오면서 행자 두 분과 함께 왔다고 들었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현지인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전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가보면 우리 교민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거기에서 포교를 해서 스님이 될 사람을 데려 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영어도 좀하고 우리말도 잘하는 교포 2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공부를 시켜 포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도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불교나 불교사상에 관한 것은 요즈음은 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되거든. 그래서 나는 누구라도 해외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종단에서 지원을 하든지 거기 나가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hne Iro kein Ku' (색 없이는 공도 없다)라는 말은 일본의 독문학자인 페쓰가와 교수와 독일의 실존학자 하이데거가 언어의 깊은 의미까지 뚫고 들어가 실질적으로 동서의 사상을 균원적 차원에서 만들어 낸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이라고 볼 수 없다. 불교인으로서 의식된 사상이이다. 지금의 불교는 언어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문화적 해석을 달리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각 문화에서 또 다른 격의의 시대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행하는 내외국인 스님들이 화합하여 불교용어를 다시 다듬어 보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불교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와 전법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제 막 불문에서 제 역할을 시작할 학인 스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가 국내외적으로 힘든 점이 많아. 첫째는 경제가 힘들어. 둘째는 사람이 있어야 교단이 발전해 잘 텐데 사람이 없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종단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학인스님들의 생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써 강원 출업을 앞둔 화엄반이다. 늘 지나친 목련나무 아래에서 있지만 그 만개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약할 수 없다. 돌아보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동안 우리 모두가 좀 더 포괄적으로 변해있길 바랄 뿐이다.

현장에서 묵묵히 전법을 행하는 스님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었지만 지면의 부족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를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 몹시 아쉽다. 그래도 이 말 만큼은 꼭 하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직 자신의 원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면 순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기 바랍니다. 지

금도 쉬지 않고 그 발원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라고.

♣ 다음 글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보리사에서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운문사 제35회 출업생 협진 스님이 그곳의 현황과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를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해서 옮깁니다. 여러분의 신심에 발전을 기약합니다.

해외 포교는 필수입니다. 좋은 한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번 생각을 바꾸어 세상에 나오세요. 제가 사는 곳에 한국 교회는 4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절은 고작 2개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족합니까? 불교에 대한 갈증이 대단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포부를 가지세요. 저는 처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정보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뭉치면 두 배 세 배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든든한 부처님 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후배 스님들과 함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 가장 청정한 곳에서의 기도

편집부



버리고 또 버리니 쁜 기쁨일세 탐진치 어둠 마음 이같이 버려  
한 조각 구름마저 없어졌을 때 서쪽의 둥근 달빛 미소 지으리  
「옴 하로다야 사바하」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운문사의 명물인 은행나무가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본다. 해거리를 해서인지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열매를 떨어뜨린 은행나무. 은행이 익어 떨어질 즈음이면 은행나무 옆에 있는 재래식 정랑은 팬한 눈총을 받곤 한다. 은행 특유의 콤콤한 냄새임을 눈치채기 전이라면 누구나 정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올해도 그랬던, 불과 며칠 전을 떠올리며 정랑에 들어서는데, 오늘따라 ‘입축오주(入廁五呪)’가 눈에 들어온다. ‘아직도 벼릴 것이 남아있을까’ 망상을 해 본다.

비워서 청정함은 최상의 행복 꿈같은 세상살이 바로 보는길  
온 세상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청정한 저 국토에 어서 갑시다  
「옴 하나마리체 사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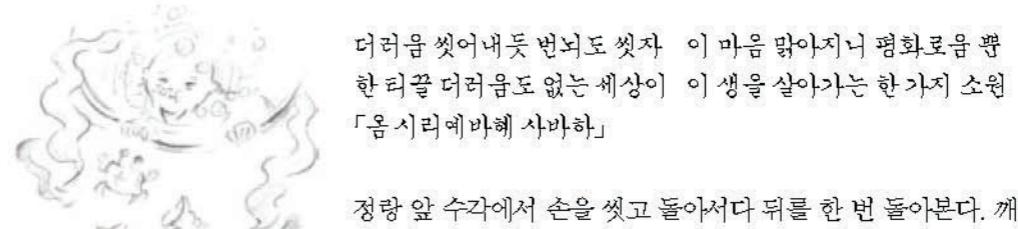
입산 후 처음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열에 일고여덟은 입축오주를 말한다. 오주는 세 번씩 거듭 염하는 여느 진언파는 달리 일곱 번씩 외라고 한다. 율장에서도 등장하지만 노스님의 옛날이야기를 통해서 더 쉽게 접하는 입축오주. 그 중 유명한 일화가 당나라의 고승 도선율사 이야기일 것이다.



활활타는 불길 물로 껴진다 타는 늑 타는 경계 타는 이 마음  
맑고도 시원스런 부처님 감로 화택을 전너뛰는 오직 한 방편  
「옴 주가라야 사바하」

계행이 청정하기로 이름난 당대의 고승인 도선율사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졌다. 엉덩방아를 찧는 순간, 달려와 부축해 주는 이가 있어서 스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북방 비사문천왕의 아들 장경이라고 소개하면서 평소 계행이 청정한 스님을 존경하여 늘 따라다니며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스님이 물었더니 장경은 “스님께서 평소 입축오주를 하지 않아 잘 닦아도 몸에서 구린내가 나는지라 30리 밖에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얼른 뛰어왔지만, 바로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후 도선율사는 입축오주를 빼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입축오주를 잘 외워야만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며 또한 축신들의 보호도 받는다고 한다.



더러움 씻어내듯 번뇌도 씻자 이 마음 맑아지니 평화로움 뿐  
한 턱풀 더러움도 없는 세상이 이 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소원  
「옴 시리예 바해 사바하」

정랑 앞 수작에서 손을 씻고 돌아서다 뒤를 한 번 돌아본다. 깨끗한 것은 날마다 마른걸레질을 해 가며 늘 처음 같은 모습으로 잘 닦여진 정랑이요, 가지런한 것은 대중 스님들이 벗어놓은 텔신이다. 법당에 들어갈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뒷모습을 정리해둔 것이다. 이렇게 행동거지 하나 마음 다함이 수행이듯 정랑을 드나들 때에도 우리는 자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참으로 정갈하다는 느낌이 드는 글씨체(학장스님이 쓴)의 현판이 걸려있는 운문사 정랑. 전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그 현판의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아차!

‘무슨 망상으로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온다.

한 송이 피어나는 연꽃이련가 해 뜨는 푸른 바다 습결을 본다  
내 몸을 씻고 씻은 이 물마저도 유리께 푸른 물결 청정수되리  
「옴 바아라 뇌가닥 사바하」



누구나 부처님과 다름없는 참된 사람이다. 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여성 중의 우리들일 뿐이다. 그러니 저 선원의 정진 대중처럼 화두를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망상으로 헛되이 시간을 보낼까 보나.

무엇을 더 벼릴 것이 있을까 하고 지금에 만족하는 듯 했지만, 시시때 때로 정말 벼려야 할 것은 내 것이라 여기는 이 몸뚱이 안에 쌓여가고 있다. 어쩌면 말쑥하게 보이는 걸모습 보다도 더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생명의 부산물을 내려놓고, 당장에 큰 걱정거리였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이를만큼 참으로 청정한 공간이다.

예토가 곧 정토임을, 냄새나는 것을 버리고 나면 곧 청정하고 편안해짐을 너무나도 쉽게 설하는 공간. 이곳에서,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내가 행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굳건한 수행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임을 배운다.



## 단네왓, India!

현수 / 대교과

### ❖ 10월 9일

어느 여행을 떠나던 때보다도 들뜬 마음은 감출 길이 없었다. 행복한 설렘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훨씬 더 넓은 바다와 같은 하늘 속으로 금새 빠져 들어갔다. 비행기와 풀을 하늘에 맡기길 8시간. 우리는 그렇게 새벽 한 시경 끝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인도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신기한지 가던 걸음 까지 멈춰가며 바라본다. 덕분에 우리도 그들과 인도의 풍경을 맘껏 구경했다.

### ❖ 10월 10일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버스를 타고 동이 틀 무렵 기차역에 도착했다.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역, 시간차를 느낄 여지도 없이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첫 목적지인 엘로라 석굴이다.

바위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만든 사원은 불굴의 정신과 술한 회생자들의 노력이 아니면 결코 이루 어질 수 없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이다.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 세 종교가 함께 어우러진 34개의 석굴, 조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교했으며 크

기도 어미어마했다. 종교와 문화는 달라도 첨첨신증 동굴에 이처럼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놓은 선인들의 지극한 신심과 정성에 절로 감탄이 나왔다. 불교사 원인 10번 굴에서 첫 예불소리가 울려 퍼진다.

### ❖ 10월 11일

아잔타 석굴이라…, 어제 보았던 엘로라 석굴과 다를 바 없을 거라던 내 생각은 여지없이 깨졌다. 정녕 이것이 그 시대에 가능한 작업이었던 말인가!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셨을 승방과 우리들처럼 대중이 모여 장엄하게 예불을 모셨을 법당은 절로 삼구의를 염할 만큼 웅장했다. 굴마다 갖가지 형상으로 계신 부처님과 훠손되기 전에는 더욱 고왔을 벽화의 채색은 오랫동안 내 발을 불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입정에 든다. 천 년간 밀림에 가려져 볼 수 없었다던 아름다운 유적을 볼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며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 ❖ 10월 12일

인도 기차의 덜컹거림은 상상을 초월한다. 긴

장을 하며 7시간이나 선잠을 잔 탓인지 온몸이 찌뿌드드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산치대탑으로 향한다는 벽찬 감동으로 기득차 있었다.

산치대탑을 세운 인도사람들의 정교함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난 네 개의 문과 각 문에는 석주가 있는데 정교하게 조각된 부조에 혀를 내둘렀다. 대탑이 세워질 무렵엔 무불상 시대여서 그런지 부처님의 형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고도의 상징과 은유는 그들의 향심을 엿보게 했다. 맑고 높은 하늘과 맞물릴 듯한 이 대탑에서 어떤 스님은 침회의 절과 삼보일배를 올렸고, 또 다른 스님은 안타까운 눈길로 훠손된 불상을 보며 가슴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마치 부처님이 ‘괜찮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듯한 그림이었다.

### ❖ 10월 13일

아그라의 타지마할에 도착했다. 비록 성지는 아니었지만 화려함 속에 웬지 모를 애타함이 느껴지는 곳. 그래서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곳. 새하얀 대리석은 마치 현대에 건축한 것처럼 깨끗했다. 한 명의 망자를 위한 열망으로 수많은 희생과 국가의 재정을 당진한 왕은 결국 아들의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나 유폐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없던 왕은 허무하게 갔지만 그가 남긴 아내의 무덤은 인도를 빛나게 하는 희대의 불가사의한 걸작으로 남아 이렇듯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니 참 역사는 허무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그라 성으로 향하니 그 옛날, 샤자한 왕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기분이다. 저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보며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 ❖ 10월 14일

장장 9시간을 기차로 달려 바라나시로 가는 길. 현지인처럼 살자! 이렇게 다짐했건만 도통 이 냄새만은 적응이 안 되나 보다. 또 코를 막게 된다. 끄응…, 바라나시에 도착해 갠지스 강으로 10분 남짓 걸어가는 동안 인도 시장을 구경한다. 물건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빨결음이 가볍다. 그냥 지나칠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들은 알까?

항하사 모래의 주인, 갠지스 강. 보트 유람을 하며 소원을 담은 꽃잎을 띄운다. 저녁에는 회장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삶과

죽음은 그들만의 성스러운 성지의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밝게 타오르며 서로를 기리고 있었다. 우리의 순례기간에 축제가 있어서 그런지 매일 열리는 축제가 오늘은 더 화려하다는 가이드. 아, 역시 복덩어리 운문승!

처음 법을 설하신 녹야원에 도착했다. 빈티에 혼적만이 남아 이곳이 초전법륜지라는 것만 짐작하게 할 뿐 많이 훠손되어 있었다. 그 옛날, 이곳에서 초전법륜을 설하신 부처님과 5비구의 형상이 신기루가 아닌 현실로 그 시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꼈다. 다메크스투파 앞, 잔디에 물을 주어서 그런지 땅이 촉촉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예불을 모시고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한다. 그리곤 잠시 주어진 자유 시간, 사진을 찍으며 생각하건대, 인도는 초상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결같이 웃으면서 사진촬영에 협조적이어서 얼마나 고맙던지. 단네왓(감사합니다)!



### ❖ 10월 15일

슬슬 배가 아프다고들 한다. 무사히 회향해야 할 텐데…, 걱정도 잠시 부처님이 성도한 보드가야 대탑에 도착하니 다들 환희에 차서 바빠 움직인다. 성도지인 만큼 많은 순례객들이 저마다 명상과 오체투지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성스러운 대탑에 맨발로 들어서니 향미족지인 수인을 한 부처님이 우리를 반겨주신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예불을 모시고, 부처님의 불퇴전 금강좌를 마주하며 입정에 든다. 저녁에 다시 찾은 대탑은 간절히 기도하는 수행자들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 ❖ 10월 16일

오늘은 순례 아래로 가장 난코스다. 산 3개를 넘어야 한다는 말에 지레 겁을 먹었다. 그도 그럴



린다. '멋있다'란 뜻인가? 아무튼 이곳은 「유마경」의 설법지인 바이살리다. 성지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인도에 왔다는 것을 잊은 채 이 세상에서 여기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독립고지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러했을 거라는 기시감(既視感)을 느끼며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아쇼카석주와 원왕봉밀의 원숭이 연못 주위로 걸터 앉았다. 연못주위의 고요함이 바빴던 우리 일정에 달콤한 휴식을 주었다.

춘다의 마지막 공양지로 이동하는데 한 스님의 배탈이 심해지나 보다. 결국 현지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참고 참으며 호텔로 먼저 떠났다. 남은 우리는 조금 울적한 마음으로 열반사원에 도착했다. 사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울컥한 눈물은 결국 제어장치를 잊어버리고 쉘 새 없이 흐른다. 염불소리가 열반당 전체에 퍼지고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며 저마다 감동과 슬픔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견고한 서원을 세운다.

#### ◆ 10월 18일

부처님이 24회 우안거를 보내고 우리의 소의경 전, 「금강경」을 설법한 기원정사에서 신심 깊은 금강경의 합송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치 우리가 천이 백오십인의 비구가 된 듯한 착각이 든다. 저녁에는 한국 절인 천축선원에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된장국과 쌀밥 한 그릇을 먹고 행복하며 기분 좋은 하룻밤을 보냈다.

#### ◆ 10월 19일

만물이 깨어나는 도량석 소리에 디들 범당으로 향한다. 깊게 배인 익숙한 움직임으로 정성스럽게 새벽예불을 모신다.

아침 일찍 출발해 인도와 네팔 국경을 넘어 네팔쪽의 카필라성을 보면서, 그 어느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었던 간에 깊은 존경을 보내며 대성 석가사에 도착했다. 한창 불사 중인 석가사는 많은 순례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텔의 방이 익숙해졌다고 절에서의 이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의 분별심에 놀라 반성하며 속으로 참회진언을 한다.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회향하는 시점에 잘못된 생각을 한 나를 자책하며….

#### ◆ 10월 20일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로 이동한다.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곁으로 올 것만 같은 이 공간에서, 성지에서의 마지막 예불을 올린다. 오래 버스를 탄 것이 축적되었는지 몸이 무겁다. 그걸 안 걸까? 감사하게도 마야부인의 친정, 쿨리성으로 가는 긴 산책길에서 몸을 풀 수 있었다. 우릴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욕심으로 불행해지기 쉬움을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석양이 질게 깔렸다. 마치 인도가 부처님의 품이고 어스름한 태양이 부처님의 후광처럼 느껴졌다. 인도를 떠난지 이틀, 장대 하나를 국경이라고 넘어 왔을 뿐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여전한 건 장애물이 없는데도 울려대는 경적 소리뿐. 즐비해 있는 깨끗한 상점들과 수많은 외국인들, 그렇게 조금 늦은 저녁, 포카라에 도착했다.

#### ◆ 10월 21일

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히말라야 영봉 일출을 보기 위해 사랑코트라 부르는 곳으로 올랐다. 조금씩 여명이 밝아오는 설산을 보면서 산파 동화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 설산을 보며 잠시 입정에 들었다. 조금 찬 바람이 불었으나 오히려 시원하다 느끼며 오랫동안 설산에서 고행하신 부처님의 형상을 마음에 각인시켰다.

#### ◆ 10월 22일

네팔 국내항공편을 이용해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 안. 작은 비행기는 고도의 압력을 고스란히 받아 더욱 덜컹거렸다. 바이킹을 타는 이 기분! 난 좋다 하는데 어떤 스님은 손잡이에 원수라도 진 것처럼 꽉 잡고 눈을 질끈 감는다. 또 한 스님은 열심히 정근 중이다. 밖은 설산이 위엄을 뿜내며 셔터 누르

기를 권해서 열심히 응해줬다. 카트만두의 살아있는 듯 한 왕궁이 있는 곳, 파탄시티는 고대 건축 그대로가 도시를 장엄하고 있었다. 그리고 쿠마리 사원에서는 직접 쿠마리를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눈에는 그저 네살배기 아이로만 보이는데 살아있는 여신이라니… 역시 큰 문화 차이를 느낀다.

#### ◆ 10월 23일

네팔 최대의 보드나트사원. 마니차를 돌리며 열심히 석가모니불 정근을 한다. 이제 헤어질 시간인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인도, 정들었던 가이드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팬시리 눈물이 난다. 14박 15일이 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다음에 다시 오기를 기약하며 한국에 도착했다. 고향의 가을 향기가 우릴 반겨 주었다. 한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느낀 건 '역시 한국 도로는 비단길이다!'

이렇게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항수병처럼 인도를 그리워할 것이다.

맨발에 뜰망풀망한 눈으로 보던 아이들, 배고픔에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여자들, 끝까지 쫓아오며 물건을 내밀고는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이라던 낙천적인 인도청년들, 내 팔뚝보다 가녀린 다리로 럭샤를 끌던 아저씨들, 길에서 만난 선한 인상의 사람들 모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갈색. 여성 내내 느낀 인도의 색이다. 차가워 보이지만 따스하고 따스하면서도 고독스런, 보면 부서질 듯 위태하지만 그래서 더욱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홀로 고독하게,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이길. 성지순례를 통해 느낀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신심과 원력을 발로하며.



#### ◆ 10월 17일

파트나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니 인도인 한 명이 묻는다. 우리 승복이 유니폼이냐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니폼은 좀… 한국스님이 입는 옷이라고 설명해주시니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

## 생명에 대한 예의

강제윤 / 시인



“일본의 한 어부는 최근 돌고래를 죽이는 것을 그만 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돌고래는 죽기 전에 눈물을 흘립니다. …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제인 구달 ‘생명 사랑 실계명’)

내가 육식을 끊은 것은 5년 전이었다. 육식을 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종교적, 사회적 이론은 수없이 많다. 또한 무슨 이유에서건 실제로 육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세월 육식을 해 왔었다. 그것은 어떤 이론도 나를 온전히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에게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개인적인 이유도 없었다. 육식이 건강이나 생태계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육식을 끊지는 않았다. 육식과 자발적 기난이 조화될 수 없는 삶의 방식임

에도 그랬다.

나는 집을 벼리고 유랑 걸식하며 살아온 지 오래다. 그래서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다. 또한 육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음식이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약으로 먹는다면 육식이든 채식이든 무관한 것이다. 그렇게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 행위를 응호하고 합리화 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얻어먹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까지 한 것은 자기기만이었다. 어째서 나는 배푸는 사람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고 얻어먹는 입장에서 가장 몸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얻어먹는 처지니 주는대로 먹는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만이다. 나는 분명 가장 가난하고 소박한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제 나는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 미몽에서 깨어나게 해 준 것은 제인 구달이었다. 나는 제인 구달의 육식금지의 이론을 ‘정의의 관점에서의 육식 금지’ 혹은 ‘생명의 관점에서의 육식 금지’라 이름하고 싶다.

“가축에게 곡식을 먹이는 것은 심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고기를 먹고 낼 수 있는 에너지는 가축을 먹일 곡식을 재배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곡식에서 고기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구의 총 1차 생산량의 7분의 6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손실 되는 것이다. 어빈 래슬로우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육식에 의존하는 식습관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육식은 인간 집단 전체를 먹이는데 꼭 필요한 자원을 낭비 하려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서 나온 식습관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제인 구달 ‘생명 사랑 실계명’)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의 희생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어떠한 존재도 타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육식은 악이고 채식은 선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채소 하나 기꾸기 어려운 사막의 유목민들이 생존을 위해 육식을 하는 것을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도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선택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떠한 식습관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고기 1킬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16킬로그램의 곡물이 소요된다. 밀 1킬로그램의 재배에는 물 4리터가 들어가지만 소고기 1킬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만 리터의 물이 낭비된다. 인류가 고기 소비의 10%만 줄여도 곡식 1200만 톤이 절약된다.

강제윤님은 일정한 거처 없이 살아가는 떠돌이 시인이다. 10년 동안 사람사는 한국의 모든 섬(500여 개)을 순례할 계획이다. 3년간 100여 개의 섬을 걸었다. ‘청도 한옥 학교’를 출업했다. 1988년 〈문학과 비평〉을 통해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보길도에서 온 편지》, 《숨어 사는 즐거움》, 《부처가 있어도 부처가 오지 않는 나라》 등의 책을 펴냈다.

이는 기아로 죽어가는 6000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이다.

한 사람이 1킬로그램의 소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16명의 사람이 죽어 죽게 되는 것이다.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이보다 더 절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 사람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16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는 그저 소고기 1킬로그램을 먹지 않는 일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육식을 금지해야 할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다른 먹거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인간들의 탐욕이 이 세상을 궁핍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면 과장일까. 단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끓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 저쪽의 형제들에 대해 무관심 하지는 않았는가. 엘리 위젤의 말처럼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인 것을.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저주인 것을.

육식금지는 단지 사람들만을 위한 행동은 아니다. 우주의 어떤 생명체도 그 자체로 살아야 할 이유와 존엄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씩 사람인 것이 부끄럽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생명에 대해 무례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인을 위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 생체해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자의 손을 훔아 준 개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수술자는 가슴이 둘이 아닌 다음에야 죽을 때까지 회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 갈 것이다.”〈코끼리가 울고 있을 때〉(까치)

## 마음을 내는 일

만경 / 사미니파



파란 하늘이 더욱 더 푸르고 맑게  
보이는 가을이다.

산등성이와 하늘의 그 선명한 구  
분을 보자면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뚜  
렷해지는 것만 같아 시원해진다.

윤문사에 입학하고 강원에서 맞  
는 세 번째 철. 멀리는 마음으로 입방  
고사를 치룬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세 철이 지나간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 전에는  
처음 하는 대중생활에 적응하느라 땀하늘의 저 별만큼이나 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을 꽉 채운 적이 있었  
다. 생각이 하나, 둘, 셋, 넷……. 머리가 뻥~하고 터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시 넷, 셋,  
둘, 하나로 줄여갈 수 있게 했던 네 마디 말을 만났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네 마디 말로 잡념을 줄일 수  
있다니. 줄이고 줄이면 언젠간 '〇'이 되고 그것이 바로 '空'. 어떤 모호한 말도, 외우기 어려운 말도, 먼  
나라 말도 아니었다. 항상 우리 주위에 공기처럼 퍼져 있는 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래, 날이 갈수록 내 속에 있던 단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기 시  
작했다.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똑바로 바라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묻어  
버린 채, 그런 단점들은 내 책임이 아니라며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내 책임이었던 실수  
에도 왠지 억울한 마음이 불끈불끈. 하지만 마음을 바우고 되돌려 생각하니 내 일임이 분명했다. 같이 하

는 스님에게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다.

어느 날, 은사스님께 안부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속상한 내 마음을 알아차리시곤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은 너의 마음이 투영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채공 소임을 살면서 간장독 정리를 못하는 나를 반 스님들이 도와준 일도, 고추장·된장 통을 채  
워 넣는 것이 유독 어려웠던 것도, 나에게 큰일이다 싶으면 항상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던 것 모두가  
내가 그 일들을 어렵다, 하기 쉽다며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은사스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  
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한 행동이 문제  
가 되어 의기소침해지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안의 뭔가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합니  
다.”라고 마음으로 읊조렸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일을 더욱 잘하게  
된다던가 하는 어떤 일이 확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남 탓이라고 돌리던 무책임한 태도를 직시하면  
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어하면  
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런저런 생각에 어린아이 같이 청얼대고 원망했던 나 자신  
을 발견하곤 얼굴이 확 붉어졌다.

우리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무의식에 영겁의 생을 살면서 쌓  
아온 일이 저장되어 있고, 그 기억들이 지금의 삶에 재생됨에 따라 우리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 말을 반  
복해서 그동안의 망념과 기억들을 제거해서 ‘제로’, 즉 ‘空’으로 만들 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다.

이 말은 우리들이 어떤 원을 발할 때, 혹은 업을 소멸하고자 할 때 법당에 올라가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같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念하고  
일시라도 공경하면 즉시에 곤경에서 벗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일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지치고 힘들면 투덜거리던 습관을 바꿔서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감  
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랬더니 처음 해 보는 일이라던가 불가능해 보여서 막막  
하기만 했던 일에도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어려운 소임도 함께 해주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때로는 잘잘  
못을 짚어주는 도반 스님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될 귀한 사람들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내며 신심이 절  
로 우러나는 강원생활을 보냈으면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인연이라는 고리를 잊게 된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멀하게 된다는 부처님의 인연법. 그 인연이 나의 과거에서부터 시작해 현재와 더불어 미래 생까지도 이어진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연법을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평생에 한 번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다비식에 참석한 인연은 부처님의 교법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란아! 심부름 좀 다녀와라.”

출가 전, 어느 날 오후 늦게 걸려온 노스님의 전화. 백양사 다비식에 다녀오라는 말씀이었다. 백양사가 어디인지도, 누구의 다비식인지도 모른 채 출발한 길에 눈송이가 훌뿌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평평 쏟아졌다. 초행길에 함박눈이라니. 아, 판세음보살님!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연이었을까, 아니면 큰스님의 가파력이었을까?

장성으로 가는 길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접촉사고, 빙판에 미끄려 차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다. 나는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연신 “다비식에 가는데….”라는 말을 하며 사과를 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아고, 어린 학생이 큰스님 다비식 왔나 보네. 늦기 전에 얼른 갑시다.” 하며 오히려 어리둥절해 있는 나를 걱정하며 백양사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도착한 다비식장. 눈 때문에 장내가 어수선하고 조촐할 거라는 내 걱정과는 달리, 환희롭게 내리는 눈과 숙연한 모습의 불자들이 큰스님의 마지막 길을 장엄하고 있었다. 生과死가 둘이 아님이 마음으로 전해졌을 때 다비식은 시작되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느새 큰스님의 영정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인자함이 충만한 맑은 눈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따끔따끔 저려왔다. 불현듯 고개를 돌려보니 수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큰스님 한 분만을 엎드려 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나로 하여금 이 공간에서 빠져나와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생전의 모습을 뵈 적도, 밀 한마디 해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 인연은 아주 오래전 언젠가 한 번쯤은 서로 마주보며 마음을 나눈 적이 있던 만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마주하며 백양사에서의 생각과 일은 잊어버린 채, 나는 삭발염의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백양사에서 큰스님 사리를 모시고 사진전도 함께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젠 내가 가봐야 안되겠나.” 하시며 채비를 하는 노스님을 모시고 다시 도착한 백양사. 다비식 때 내렸던 눈도, 사람도 없는 그곳은 내가 전에 왔었던 백양사가 아닌 것 같았지만 뭉클했던 그 느낌은, 마치 향수에 젖은 사람처럼 오래도록 한자리에 멈춰 서 있게 만들었다. 큰스님 수행의 마지막 흔적들인 사리를 바라보며 스님처럼 삭발염의해 모습이 비슷해진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곤 ‘서옹 큰스님, 이렇게 맷어주신 인연 소중히 지켜나가 수행 잘 하겠습니다.’ 라며 서원했다. 순간 몇 년 전 그때처럼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런 나를 가만히 지켜보던 노스님께서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래 얼굴도 이름도 누군지 암것도 몰랐어도 인연을 짓는다는 것이 이리 무서운거다. 다비식 한 번 가 봤다고 그런 거 아이가. 다음에는 꼭 그 인연으로 큰스님 생전에 다시 만나 좋은 가르침 배울끼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그라.”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

일생에 한 번 닿을까 말까한 스님의 다비식을 본 것도 어떠한 큰 복을 지은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인연은 내 삶의 방식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인연이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이 경에 나오는 가르침만이 아닌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 몸소 배우고 익히는 순간이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기억난다. ‘인연의 고리를 만드는 것도 그 고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나의 코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위의 인연들과 삶을 이루어 나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또 다른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어놓은 인연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 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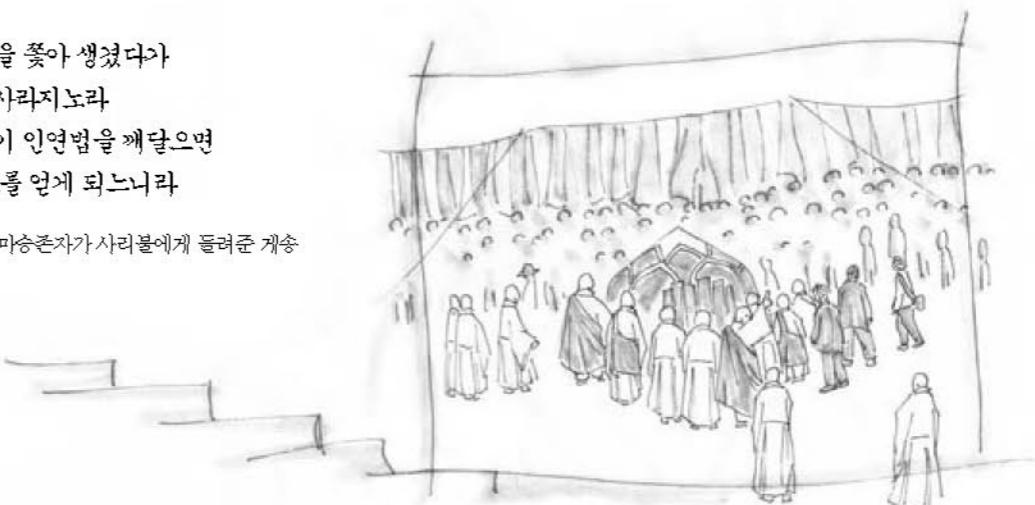
모든 것은 인연을 쫓아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노라

어느 누구든지 이 인연법을 깨달으면

그는 곧 참된 도를 얻게 되느니라

마승존자가 사리불에게 들려준 계송



## 행복합니다

이진 / 사교과



겨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늦가을 찬바람은 땅 위의 마른 잎을 또르르 물고 다닌다. 봄의 따사로운 햇빛 아래 움튼 초록빛 나뭇잎은 가을이 되면 온 산을 화려하게 장식했다가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땅 위로 떨어진다. 문득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인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듈다.

햇볕 따가웠던 지난여름, 나는 죽음을 만났다.

들이마신 숨을 내뱉지 못하고 내뱉은 숨을 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이에게 죽음은 멀게만 느껴진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 가볍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잠시 가슴 아파하다가 오래지 않아 일상생활로 돌아온다. 하지만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여름 일주일, 미하보디 교육원에서 내게 찾아온 죽음은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죽어가는 나

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교육시간마다 웃고 울고 소리치면서 나는 ‘남을 돋는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각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아픔에는 관심을 가지고 질책하고 위로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에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를 위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관심은 남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졌고 결국에는 나와 남도 없이 교육받는 스님들 모두가 서로를 돌보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아픈 사람을 물리적으로 돌보는 간병인을 ‘호스피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호스피스의 역할은 삶의 마지막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기도하고 49재를 잘 지내주는 것이 그저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친구로, 부모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태어나는 것 못

지않게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사실 행복한 죽음은 행복한 삶에서 온다. 교육기간 동안 접했던 임종사례를 통해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음 또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한 삶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 즉 자신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일 것이다. 호스피스 교육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상대를 돋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육체에 노병(老病)이 찾아들 때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교육과정 중 가슴 아팠던 점은 죽음을 앞에 둔 환자들이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나를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이나 온사스님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코끝이 시리고, 가슴 한 편이 저며 온다. 얼굴이라도 좀 더 볼 수 있다면 억만금이라도 들이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의 집착과 이기심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병원 침대 위에서 생명유지기계를 매달아 억지로 숨 쉬게 하고 음식을 넘길 수 없어 물 같은 미음을 위와 곧바로 연결된 코줄로 흘려 넣어 한 끼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생각해 본다. 아원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며 애정을 표현하지만 어쩌면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마음씨 야 하는 것은 ‘떠나보내는 슬픔’을 수습하고 ‘떠나는 슬픔’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일이다. 열심히 살았던 노고를 함께 나누고 이생에 우리 곁에 존재해 준 것

을 감사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 준다면 비록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길 한복판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가족에게 버림받은 임종자라면 삶의 길 끝에 내버려진 깊은 외로움과 싸우다 지쳐 더 이상 내몰릴 곳도 없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수치심과 주변의 무관심에 상처만을 안고,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두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은 이 손으로 닦아줄 수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두 손으로도 닦아줄 수 없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죽음은 종교를 떠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지도 모른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름다웠던 삶을 추억하고 자신과 삶을 함께 했던 이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려싸여 축복받으며 평화롭고 따뜻한 빛과 공기 속에서 조용히 이 세계와 작별하고 싶어 한다. 설령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충실히 있도록 자연스럽고 행복한 이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호스피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듈다.

이번 호스피스 교육은 출가 수행자인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교육을 받는 내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지 않았던 나를 만나면서 상대의 아픔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슬프고 두렵기만 했던 죽음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참으로 행복한 교육이었다.

## 4차원의 미덕, 中庸의 재발견

편집부

시공간(時空間). 이제 일상어가 되어버린 '시-공간(space-time)'이라는 합성어가 서구에 등장한 것은 불과 1세기 전이다. 3차원 물리공간에 시간을 결합시킨 4차원 공간이라는 이 개념은 1908년 독일 수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서구인들의 세계 사유는 오랫동안 절대공간의 개념에 의지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잡동사니를 다 치운 뒤에도 덩그러니 남는 방처럼 그렇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믿었다. 인간을 비롯한 각종 생명체와 사물들의 존재는 그 공간을 점유하는 임시 부속물일 뿐이다. 이 우연적 변수들을 다 제거한 순수 공간이 모든 탐구의 출발점이었다.

우주(宇宙). 우리의 오랜 '우주'에는 공간(宇)과 시간(宙)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한다. 4차원의 시-공간이다. 수천 년도 훨씬 전에 우리 옛 선조들은 공간을 시-공간으로서 통찰했다. 물론 '우주'라는 낱말에 힘의된 시-공간의 복합성이 민코프스키의 '시-공간'처럼 수학적이고 현대 물리학적인 언어로 곧장 번역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동양의 지혜는 애초부터 절대공간, 순수공간을 외경하지 않았으며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사실이다. 공간은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없고 안에서 살아 질 수만 있다는,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서구에 유통되기 시작한, 이 지극히 현대적인 통찰이 우리 의식 저 깊은 곳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공간의 관찰자들에게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그것들은 세계의 실체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배후의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유서 깊은 철학으로부터 종교, 과학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다. 반면에 공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성변화의 현상은 삶의 출발점이었다. 복잡다단한 수식과 그래프가 없이도 그들은 이 공간과 시간, 존재하는 만물과 그 변화작용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처럼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을 직관했다. 그들은 변화의 원인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패턴을 포착하고 맥락을 유형화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생성변화하는 공간과 소통하고 그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 고귀한 삶의 지표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물음은 이것이다. 공간으로부터 시-공간으로의 차원의 비약은 과학의 오랜 지반을 허물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아인슈타인 상대성원리의 등장으로 과학적 세계관은 다시 한 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겪었다. 이 인식의 비약은 실천적 영역에도 어떤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보편타당하고 영원불변한 선(善)이라는 가치는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라는 3차원의 삶을 위한 기획물이었다. 그런 삶은 불가능함이 밝혀졌다. 4차원의 삶에 어울리는 실천적 덕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일찍이 시-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통찰했던 선현들의 후예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지혜에 다시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 중에서도 중용, 중庸(中庸) 말이다.

흔한 오해는 중용(中庸)을 시종일관 중립을 고수하는 입장쯤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중(中)을 두 지점 사이의 양적 중간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다. 「중용」 2장에 의하면, 중용은 곧 시중(時中)이다. '시(時)'란 당면한 상황, 구체적 시공간을 가리킨다. '지금 여기에서(here-and-now)'의 의미가 시(時)라는 이 한 글자에 압축되어 있다. 때에 맞음(時中)이란 특정한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과 같다. 약은 병을 치료하는 효용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매력이 없다. 4차원의 덕은 불박 이별처럼 저 높은 곳에서 빛날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 변화의 한가운데에 내려앉아야 한다.

그러나 각 상황의 특수성에만 국집한다면 덕의 효용은 자칫 기회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4차원은 변화의 공간이 되 그 변화는 연속적이다. 한 순간만을 단절적으로 취할 수 없을 뿐더러 맥락을 무시하고서는 상황판단을 내릴 수조차 없다. 시중(時中), 즉 중용의 실천은 구체적 시공간에 얹힌 변화의 양상들을 그 흐름 속에서 정확히 인식하는 데에 그 성공이 달려있다. 변화의 맥락들에 여실(如實)하게 근접할수록, 때에 맞는 행위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대 철학자 장재가 중용을 '고정관념이나 사사로운 고집이 없음'이라고 폴이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중용은 한 번의 개입으로 모든 불안을 제거하여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지 않는다. 언제나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시공간에서 끊임없이 다시 판을 짜는 것이 중용이라는 덕이다. 좌절하거나 해태심을 내는 것은 가장 멀 중용적인, 극단의 태도이다. 중용의 '용(庸)'은 평상적이고 범상하며 어렵지 않음을 나타낸다. 나날이, 매순간, 변화에 역동적으로 따르되 동시에 평상심으로 부단하게 특별 할 것 없이 시공간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중용이다. 그래서 중용은 곧 성(誠)이기도 하다.

선, 사랑, 평화, 평등, 정의, 자비, 행복 등등 덕의 고유한 가치를 비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사실 중용은 '덕'으로서의 값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용은 어떤 뛰어난 가치의 원석이 아니라, 그 가치들을 다듬고 조화시키고 적용하는 방법과 태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이 중용을 4차원의 미덕으로 천거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굳이 '중용'이라는 이름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역동적이되 또한 가장 평범할 것이며, 변화에 민감하되 또한 변함없이 성실할 것. 다만 이것이 '시-공간'에서 삶을 지어가는 우리의 미덕이다.



▲ 오백전 기도임재



▲ 서예 외전수업



▲ 제38차 총동문회



▲ 유마경 경전 산림법회



▲ 법륜스님 특강

## 운·문·소·식

- 9월 5일~18일 제37기 '행자교육원'에 일진 학감스님이 교수사로 다녀왔습니다.
- 9월 7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3일 대웅전 개금불사 회향식 및 오백전 기도임재가 각각 대웅전과 오백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7일 요가를 시작으로 행자,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염불, 컴퓨터, 피아노 등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9월 19일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박광서 교수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5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8일~30일 화엄반 스님들의 출업여행을 위한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 대중율력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6일 치문화 반 스님들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8일 제38차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9일 학감스님과 화엄반 스님 47명이 14박 15일간 인도 성지순례 출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17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 개산대제에 어른스님과 사교반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0일 티벳 가쵸스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1일~22일 미국인 교육자 111명이 사찰탐방으로 운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10월 26일 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8일~31일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열린 무비스님의 '유마경 경전 산림법회'에 어른 스님, 윤원생 스님, 화엄반, 사교반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31일 서광스님의 '유식 30송'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고 오후에는 '환경생태보고 휴식년제 시행 최종 보고회' 세미나가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6일 가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7일 법륜스님의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11일 효탄 강사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11월 13일 가을철 두 번째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14일 '불교와 천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시우 박사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0일 가을철 포살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1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의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4일~25일 겨울준비로 김장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26일~27일 제9회 전국승가대학 교직자연수에 학감스님을 비롯한 5분의 강사스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28일 가을철 두 번째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1월 30일 가을철 종강을 하고 동안거 결제제사가 비로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 • 운성스님   | • 지만스님   | • 진우스님   | • 도현스님   | • 현수스님   |
| • 활수진불자님 | • 이기태불자님 | • 신의재불자님 | • 정영미불자님 | • 최정길불자님 |
| • 김영렬불자님 | • 권혁창불자님 | • 강환승불자님 | • 수산화불자님 | • 구신희불자님 |
| • 김상달불자님 | • 조문제불자님 | • 조일윤월   | • 박웅완불자님 |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현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 (FAX 겸용)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❶ 자격 : 1. 2009년 가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37기 이전)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❷ 모집인원 : 사미니과 00명
- ❸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❹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반명함판 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❺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 ❻ 모집기간 : 2010년 1월 18일(음력 12월 4일) ~ 2월 2일(음력 12월 19일)  
(시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❼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❽ 시험일시 : 2010년 2월 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❾ 교통편 :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 · 주지 진성

## 운문사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❶ 모집대상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  
2010년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 ❷ 모집인원 : 00명
- ❸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윤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사진(4×5) 3매
- ❹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및 필기시험
- ❺ 전형일시 : 2010년 2월 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 승가대학 신입생 및 윤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보현율원 윤주 명성 · 윤원장 홍륜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기울호·통권 제 110호·2009년 11월 27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고문·일진·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혜준·편집위원·현산, 쟁호, 현모, 장주, 선준, 선유, 도경, 우제, 덕현, 여향·사진·유덕·삼화·무처, 아원, 범서  
컴퓨터·선준·편집디자인·미디어 (02)2285-3366

